

# 환율 한파로 대덕 벤처 수출 비상령

## 채산성 악화로 출혈 수출, 환위험 대책 마련 절실

**원** 달러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 해외 수출에 주력하던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환율 한파가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기업들은 환차손 피해와 채산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응할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10억원을 수출해도 5천만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려야하는 환위험을 떠안고 있다.

환율의 하락 추세에 대비해 내년도 예상 환율대를 아예 낮춰 잡고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도 있다. DVR 제조 개발 업체인 I사는 내년도 예상 환율을 1050원대로 예상하고 전사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수출하고 있어 영업이익률 20%대를 유

대덕밸리내 코스닥 등록업체인 A사의 경우 나름의 전략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급작스런 환율 하락으로 올해 매출이 목표액보다 50억원 떨어진 8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수출 대금의 80~90%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어 환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의 10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T사의 경우도 환율 급락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원화로 바꿔 비용을 처리하고 있어, 환율이 50원 떨어지면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지역내 벤처기업들이 환위험 관리를 위해 원화 거래를 달러 거래로 바꾸는 등 각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배명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무역업체들은 환율이 1110원대를 하회할 경우 수출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제품 신기술

# 알엔테크, 라돈측정기 및 차단제 개발



**새** 집중후군의 주범 중 하나로 알려진 라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대덕밸리의 환경전문 벤처기업 알엔테크(대표 박영웅)가 4년의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알파트랙'은 실시간으로 라돈을 측정, 감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작은 원통 모양의 이 제품은 '시간 적분형 측정법'을 이용, 일정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라돈의 검출량을 측정해 평균 라돈농도를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장치다. 실내 공기 중 라돈의 농도는 기압·온도·습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사용하고, 특수 센서가 장착되어 라돈이 방출하는 알파선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기록,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특성이다.

알엔테크는 라돈측정기 개발과 함께 라돈차단제인 '알파코트'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 기술은 한번의 코팅으로 시멘트벽에서 방출되는 라돈을 감소시키고, 포름알데히드, VOC 등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의 방출을 막아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박영웅 대표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라돈은 분명 사람에게 위험한 물질"이라며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암을 유발시키는 라돈을 저감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하루빨리 서둘러 라돈의 피해를 막는데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